

## 뉴커뮤니티에서 장소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dentity of Place in a New Community

조극래\*  
Joe, Keuk-Ra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dentity of place expressed by people living in a new community. First of all,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place and then grasps what the identity of place means through the documentary studies, and experiential levels of the identity of place are examined as well. Through the field survey on a new community as a case based on interviews and cognitive maps, the identity of place is analyzed in terms of physical features, activities and meanings with relation to levels of visibility, cognition and value, and besides, attractive places and unattractive places are examined for enhancing the identity of place in a new community.

Keywords : New Community, Place, Identity, Insiderness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배경

도시가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스프롤(sprawl) 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파생되는 인구, 주택 및 교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의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시도로서 자립적인 신도시 건설안이 생겨났다.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와 악화된 도시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상도시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낭만적이며 반도시적인 Howard의 전원도시에서 출발하여 이를 반대하는 즉, 효율적이며 대량생산적인 개념에서 나타난 Le Corbusier의 도시안을 거쳐 Wright의 브로드 에이커 시티 등 사회정의와 평등에 바탕을 둔 도시건설에 있어서, 완전히 새롭고 전체적인 접근방법이 시도되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신도시와 기계적 기능주의 환경에 대해 Jacobs는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대규모의 주거개발을 지양하고 소규모 주거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sup>2)</sup> Team X 그룹은 시간-공간 개념 대신에 장소의 개념을 강조하여 인간적 만남이 가능한 사회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3)</sup>

이처럼 주거환경의 개발이 대량생산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에서 소규모의 다양한 개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Alan Colquhoun은 이를 "포스트 모던적인 도시공간(post modern urban space)"이라고 부르고 있다.<sup>4)</sup>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이후 신도시의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도시의 대개의 경우는 기존의 맥락을 무시한 채 대규모로 개발되었다.

정치 경제적 목적에서의 신도시 건설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거 그 장소가 가지고 있던 시, 공간적

1) Hough, M., Out of Place, Yale Univ. Press, 1990, pp.59-84  
2) Jacobs, J.,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1966

3) Smithson, A.(eds.), Team X Primer, MIT Press, 1968

4) Colquhoun, A., 'Frames to Frameworks',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MIT Press, 1985, p.121

\*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본 연구는 200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맥락과 단절된 형태로 건설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장소와의 깊은 관련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만큼이나 필수적이다. 그러한 관련성 없이는 인간의 존재는 많은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된다.<sup>5)</sup>

따라서 Schultz는 새로운 건물설계에 있어서 주변 환경의 이미지, 공간구조 및 자연특성의 반영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sup>6)</sup>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 내려온 환경이 아니라 급조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장소의 아이덴티티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서 그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환경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은 주민들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파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해 소속감과 애착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뉴커뮤니티의 범위

신도시라는 개념은 각 나라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르고 개념의 범위가 넓어 정의하기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신도시란 오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도시가 아니라 사전의 특정 지역범위에 대하여 장래 수요코자 하는 다양한 예정된 기간 안에 대도시와는 독립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반시설들을 새로 건설한 도시를 뜻한다.<sup>7)</sup>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수도권을 비롯하여 최근 건설된 신도시는 자급자족의 측면을 충족시켜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신도시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주거단지의 측면에서 보아 하나의 새로운 주거지역 즉, 뉴

커뮤니티(new commun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뉴커뮤니티라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이 조성되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대개의 경우 그 지역의 생태계와 역사성을 외면한 채 개발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새로이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뉴커뮤니티라는 장소적 측면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장소의 아이덴티티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장소가 장소이기 위해서는 역사가 살아 있는 곳이어야 함으로<sup>8)</sup> 새로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뉴커뮤니티라는 장소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느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먼저 장소의 개념을 살펴본 다음 장소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리하고 아울러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데 있어 하나의 매개적인 수단으로서 주민들이 장소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실체에 대한 마음속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연구로는 Lynch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린치는 인지도(cognitive map)를 이용하여 도시의 아이덴티티와 구조를 고양시키는 요소에 대한 공동의 의식 즉, 도시의 심상성(imageability)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린치는 "The Image of The City"에서 의미와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으나 평가방법의 문제와 개인적 차이로 인해 연구에서 의미와 평가가 비실체적인 것으로 느꼈다. 린치의 연구는 원경(distant panorama), 야간의 도시불빛(The City Lights at Night), 상류계층 지역 대 하류계층지역(upper class over lower class areas)등과 같은 어떤 공유된 평가들만을 보여 주고 있다.<sup>9)</sup>

5) Relph, E.,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imited, 1976, p.41

6) Noberg-Schultz, C., Genius-Loci, Rizzoli, 1980

7) Robson, A.W., New Town in Britain, 1985. 이동배, 김용하, '신도시 개발의 전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3호 1991년 6월, p.205에서 재인용

8) 김광현, 공간에서 장소로,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2호, 78년6월, p.28

9) Greene, S., 'Cityshape', APA Journal, vol. 52 1992 Spring, p.46

아울러 그는 이미지를 평가하는 방법만을 제시 할 뿐 이러한 이미지, 즉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커뮤니티에서의 아이덴티티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인지도 작성 외에 선호적인 장소, 비선호적인 장소 그리고 그것의 이유로서 나타나는 요소들, 추가적인 요소 및 총체적인 이미지를 주관식 설문으로 조사하여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물리적 특성, 행위적 특성, 의미적 특성별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최근 대구광역시 외곽에 건설된 대곡지구 주거단지를 사례로 하여 조사하였다.

## II. 장소의 아이덴티티

### 1. 장소의 개념

장소의 개념은 Hidegger에서 영향을 받은 Relph, Tuan등의 인문 지리학자들의 현상학적인 관점 그리고 환경심리학에 바탕을 둔 Canter, Dovey등의 환경-행태적 관점의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현상학적 측면은 건축이론가인 Schulz의 실존적 공간 개념으로 이어진다.

Lukermann, Relph등의 지리학자들의 장소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장소는 위치(location)를 가져야 하며, 다른 장소와 구분될 수 있는 질서(order)를 가져야 한다. 즉, 모든 장소는 독특한 실체(entity)를 가진다는 것이며 장소는 공간적 상호작용과 전이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지며 국지화(localization)된다. 또 장소는 새로운 것이 추가되고 오래된 것이 사라지는 변화성을 가지고 있으며<sup>10)</sup> Tuan 역시 공간은 정의와 의미를 얻어서 장소로 전환된다고 하였다.<sup>11)</sup>

Schulz는 장소는 물리적 실체, 형태, 질감, 색 등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 총체(totality)이며<sup>12)</sup> 그것은 환경적 특성 즉, 장소의 본질 다시 말해 장소의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장소는 행동과 목적의 중심이며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곳에서의

중심이며 사건과 행동은 단지 어떤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sup>13)</sup>라고 하였다.

한편 환경-행태적인 관점에서 Dovey는 장소는 "건강성(Health)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잘 판단되어지는 데, 건강한 장소는 그 장소의 이용자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며 건강한 장소는 역동적이고 분명한 이미지를 가진다. 건강한 장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면서 물리적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sup>14)</sup> Canter 역시 물리적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sup>15)</sup>

그런데 장소에 대한 인식론적 바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Relph와 Canter는 똑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장소를 정의하였다. Canter는 장소를 물리적 속성, 행위, 개념의 통합체로 보았으며,<sup>16)</sup> Relph 역시 장소는 물리적 환경(physical setting), 행위(activities) 그리고 의미(meanings)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였다.<sup>17)</sup>

### 2. 장소의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ident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18)</sup> 이 개념은 동일성이라는 의미와 독자성이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가 있는데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영속적인 고유성 즉, 내부지향적인 것이며 독자성이라는 개념은 외부지향적으로서 다른 것에 대한 식별성 및 우수성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하나의 장소에 적용될 때 장소의 아이덴티티는 하나하나 장소의 특이성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들 사이의 동질성에도 관련한다. 즉 장소들은 주변과 명확히 식별되도록 명료한 특성을 지녀야 하는 반면 장소들 상호간에 공통적인 요소가

10) Relph, E. 1976. 전계서, p.3

11) 이규복,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24권 94호 80년 6월, p.56

12) Noberg-Schultz, C., 1980., 전계서, p.6

13) Noberg-Schultz, C.,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1985, p.16

14) Seamon, D., 'Phenomenology and Environment-Behavior Researches',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1, 1987, p.10

15) Canter, D., The psychology of Place, Architectural Press, 1977

16) Canter, D., 1977. 전계서

17) Relph, E., 1976. 전계서

18) 박아청, 아이덴티티론, 교육문화사, 1988, p.14

있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sup>19)</sup> 이러한 장소의 아이덴티티는 장소의 본질로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과 그 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위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상호작용으로 표출되는 것이다.<sup>20)</sup> 또한 쿠퍼(Cooper)는 이러한 아이덴티티의 개념을 마을, 커뮤니티, 도시, 국가로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다. "인간은 가장 원형적인 자아를 이해하고 그 것에 구체적인 실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 자신과 가깝게 있는 주변에서 의미 있는 물리적 형태나 상징물을 택하게 된다.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인간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선택한다. 이 보다는 다소 순위가 낮지만 인간은 흔히 자아를 상징하고 표현하기 위해 주택을 선택한다. 주택다음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마을에서부터 근린주거, 나아가서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 자신을 반영하려 한다"<sup>21)</sup>라고 주장하여 역시 아이덴티티를 환경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sup>22)</sup>

19) 이규목, 1980, 전제서, p.56

20) 하재명교수는 프로센스키(Proshansky)의 장소-아이덴티티의 개념과 장소의 아이덴티티 개념을 구분하면서 환경적 아이덴티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환경적 아이덴티티는 지각주체가 환경에 대해서 갖는 독특한 생각이나 감정, 가치, 의미들 그 자체를 말하므로 지각주체의 과거의 경험이나 태도, 가치 등과 관련하여 대상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들과 관계된다. 따라서 장소-아이덴티티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인간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환경적 아이덴티티는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하재명, '서민주거환경과 환경적 아이덴티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 5호 1988년 10월 p.91) 본 연구에서도 환경적 아이덴티티와 같은 맥락에서 장소의 아이덴티티 역시 물리적 요소가 삽입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1) Cooper, C., 'The House as a Symbol of Myself', J. Lang, C. Burnett, W. Moleski(eds.),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Dowden, Hutchinson & Ross, 1977, p.130-146

22) 던컨(Duncan)의 경우 개인의 아이덴티티의 구현으로서 주거보다는 집단적 아이덴티티의 표현체로서 주거환경 전체의 질과 이미지 구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Duncan, J., 'Introduction', J.S. Duncan(ed.), Housing and Identity, 1981. 손세관, '주거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권 2호 1990년 4월 p.48에서 재인용)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사례지역도 대부분이 아파트로 구성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기 위해 주거보다는 집단적 아이덴티티의 표현체로서 주거환경 전체의 질과 이미지에 대한 측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3. 장소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경험적 차원

아이덴티티는 하나의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아이덴티티는 장소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체험하는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동질성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Pocock의 내부성(insideness)과 외부성(outsideness)의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sup>23)</sup>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관점에 대해서 Relph는 "외부와 구분되는 체험이야말로 장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새로이 이주해온 거주자가 느끼는 이미지 즉, 장소의 아이덴티티는 오래 살아온 도시에서 느끼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각주체의 입장에서 느끼는 경험의 정도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가?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이는 지각주체가 외부자인가 내부자인가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해 Relph는 인류학자인 Peter Berger의 인간의 문화활동 참여와 관련시켜 장소를 체험하는 단계를 7단계로 구분하였다.

1) 실존적 외부성(existential outsideness) : 체험에 있어 가장 피상적인 단계로서 장소에 대한 무관심 즉, 장소로부터 소외를 의미한다.

2) 객관적 외부성(objective outsideness) : 아카데미한 지리학적 측면에서 장소의 공간구조를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한 태도이다.

3) 부수적 외부성(incidental outsideness) : 장소는 활동을 위한 배경과 환경으로 경험되어지며 그 활동에 의해 부수적으로 체험되어진다.

4) 대리적 내부성(vicarious insideness) : 소설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5) 행위적 내부성(behavioural insideness) : 장소가 사건의 배경이 되는 부수적 외부성과 달리 행위적 내부성을 그 장소의 외관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을 수반하는데 비교적 좁은 의미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23) Pocock and Hudson, 'Images of the Urban Environment, 1978. 이규목,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24권9호 1980년6월, p.56에서 재인용

24) Relph, E., 1976, 전제서 pp.49-55

이해되어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로 고려되는 것은 주로 시각적 패턴이다.

6) 감정이입적 내부성 (empathetic insideness) : 감정이입적 내부성과 행위적 내부성의 차이는 시간에 따른 체험 강도의 변화이다. 감정이입적으로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장소를 풍부한 의미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으로 장소를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

7) 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 : 가장 강한 체험의 단계로서 이것은 인간이 하나의 환경과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었을 때 인식하는 장소에 대한 경험이며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환경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뉴커뮤니티에서 거주자가 체험하는 단계는 시각적 측면이 강한 행위적 내부성에서 시간의 요소가 더해짐으로써 점차적으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감정이입적 내부성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Hough도 "장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느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사람이 그 장소를 방문한다든지 거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소에 대한 느낌이 다르며, 외부자에게는 보여지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지도 모르는 것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장소에 의미와 관련성을 준다"<sup>25)</sup>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처음에는 주로 시각적인 것에서 점차적으로 장소에 대한 특별한 느낌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뉴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어떠한 느낌 즉,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신중히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 III. 장소의 아이덴티티의 상실과 회복

#### 1. 뉴커뮤니티에서의 장소의 아이덴티티 상실

Dovey는 현대에 있어서 비주거문화 즉 거주성 상실의 현상을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주거계획에 있어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사고방식의 지나친 강조, 둘째, 주택의 상품화 경향, 셋째,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환경을 조장하는 관료적이고도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 넷째, 주거환경규모의 거대화, 다

섯째, 사회적 정소의 부족, 마지막으로, 거주자의 입장이 아닌 전문가의 입장이 우선하는 계획 등으로 나타났다.<sup>26)</sup> Relph 역시 현대의 많은 도시주거환경에서 의미 있는 장소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획일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또한 주거환경의 비장소성은 대중적 가치를 무절제하게 수용한 상업주의적 환경과 기술우위의 사고방식에서 초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7)</sup> 이처럼 현대에 있어서 주거환경의 아이덴티티의 상실은 주거환경이 생산성 위주의 합리주의와 물리적 결정론의 입장에서 창출되었으며, 그것의 의미와 실존적 가치는 간과되어 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거환경 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부여하는 이미지, 장소에 대한 애착과 기억, 환경의 진솔함과 거주성 등 환경의 보이지 않는 측면이 간과되어 온 결과이다.<sup>28)</sup>

또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장소성의 상실은 여러 구체적 요소들 특히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근대성의 발달에 의해 더욱 심각하게 촉진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측면에서 뉴커뮤니티에 있어서 장소의 아이덴티티의 상실은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거주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가나 디자이너의 입장을 위주로 한 구조와 형태를 표현하고, 합리성과 표준화된 계획의 강조로 인해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모습을 지닌 획일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도시나 주거환경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문화적 환경, 역사성 그리고 생태적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러한 요소로 인해 표출되어온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계속적으로 조화, 유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의미를 지녔던 환경을 소멸시키고 이질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장소의 아이

26) Dovey K., 'Home and Homelessness', I. Altman & C. M. Werner(eds.), Home Environments, 1985. 손세관, 전계서, p.49에서 재인용

27) Relph, E., 1976, 전계서, p.43

28) Bogner, B.,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Architecture and It's Teaching in the Design Studio', D. Seamon(ed.),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1985. 손세관, 1990, 전계서 p.49에서 재인용

29)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원도 시건축 세미나 8월 발제문, 2002년 8월, p.10

25) Hough, M., 1990, 전계서 p.5

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있다. 셋째,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장소의 속성이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공간적으로 급격하게 이동성의 증가함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소속감의 부족과 장소간의 상호교류를 증대시켜 개별장소가 지니는 특수성이 약화되어 그 장소에 대한 충분한 아이덴티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2. 뉴커뮤니티에서의 장소의 아이덴티티 회복

앞서 언급한 상실되어 가는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바람직한 환경 즉, 장소창출의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eamon은 환경의 장소성 회복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고 한다. 우선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경험적 차원을 이해하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해를 인간의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구성에 있어서 건물이라는 물리적 환경 자체보다는 인간의 거주행위라는 경험적이며 본질적인 차원에 더욱 중요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거주행위는 그들이 장소에 대한 인간의 소속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뉴커뮤니티에서 거주자가 느끼는 경험적 차원은 행위적 내부자의 단계에서 감정입적 내부자로 발전되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적 내부자의 단계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시각적 차원의 경험이 주가 되는 것이다. 이는 Cullen이 "Town Scape"에서 설명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 Cullen은 도시경관을 경험하는데 있어 시각적 측면과 관련하여 장소를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연속적 시야(serial vision), 장소(place)의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환경 내의 우리의 위치에서 '둘러싸임(enclosure)과 개방(exposure)에 대한 행동' 그리고 색채, 질감, 양식, 개성, 특성들을 포함하는 외적인 모습으로서의 '내용(content)'이 주 요소를 이룬다고 했다.<sup>31)</sup> 아울러 이러

한 항목들은 각각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적 내부자의 장소의 아이덴티티는 주로 환경이 갖는 외형적인 특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감정입적 내부자의 단계는 단순히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아이덴티티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찾고 관찰하며 감상하는데, 그리하여 그 환경이 상징하는 바를 알고 그 환경이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오래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지면 자신의 주택이나 고향마을 안에서 그러한 장소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다시 말해서, 자신들과 그 장소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서 장소와 자신이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느끼는 실존적 내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병두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장소의 복원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정체성과 더불어 존재론적 안전감을 주며 이러한 진정한 장소의 복원을 위해서 장소의 복원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무엇이 장소성을 파괴했는가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복원되어야 할 미래의 장소가 어떠한지 할 것인가에 관해 유토피아적 상상력과 더불어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진정한 장소의 복원을 위한 실천 사항으로 물리적 배경과의 연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미를 창출하려는 의도적 장소감은 진정한 장소성에 필요한 뿌리내림의 속성을 결하고 있으며 진정한 장소성은 구조화된 공간으로서 장소가 아니라 실천적 공간으로서 장소의 성격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sup>32)</sup> 또한 최병두 교수가 주장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의사적(擬似的) 장소<sup>33)</sup>의 창출은 지양해야 되고 장소의 외형적 환경에 대한 복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되지만 장소의 외형적 특성을 떠나서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공간이 실천적 공간의 바탕 위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해 내부거주자의 경험적 차원을 명백히

32) 최병두, 2002, 전계서, pp.15-18

33) 새로운 장소의 건설은 기존의 장소를 와해시키면서 외형적 환경을 개발하고 이를 둘러싼 새로운 노동의 배치를 전제로 하며, 자본에게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를 보장한다. 자본의 논리에 창출된 이러한 장소들은 전통적 의미의 장소성, 즉 장소의 정체성이나 안전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의사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최병두, 2002, 전계서, p.12)

30) Seamon, D., A geography of the Lifeworld: Movement, Rest and Encounter, 1979. 손세관, 1990, 전계서, p.50에서 재인용

31) Cullen, G., 'Introduction', Townscape, The Architectural Press, 1961, pp.9-15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나타내는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 거주자가 새롭게 경험을 한다는 측면에서 느끼는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리고 새로이 표출하고 싶은 이미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가지면서 조화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고양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다.

환경적 아이덴티티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물리적 환경에 반영되어 지각주체가 볼 때, 그 물리적 환경이 독특한 특질을 갖게 될 때 그 환경이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즉, 환경적 아이덴티티는 환경이 사람과 분리되어 사람이나 사회가 이러한 환경에 정보를 표출하게 되면 환경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이 지각하는 환경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적 아이덴티티는 지각주체가 장소에 대한 애착심과 뿌리감을 통한 환경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더 깊이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sup>34)</sup> 따라서 뉴커뮤니티에서의 지각주체, 즉 거주자가 느끼는 이미지를 파악하여<sup>35)</sup> 이를 바탕으로 장소에 대한 조작행위를 함으로써 그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좋게 느끼는 이미지는 더욱 강조를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제거를 하며, 새로이 있음으로써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추가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미가 풍부한 장소를 창조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작품은 하나의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계획이 사회적 인정과 고상함을 반영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형체 즉, 구체화하는 것이다. 건축작품은 사람의 거주경관을 가깝게 끌어내어 사람들을 창조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건축의 궁극적 목표이다.<sup>36)</sup>라는 설명과 통할 수가 있다.

34) 하재명, '물리적 환경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p.48

35) 하재명 교수는 이를 지각주체인 인간이 물리적 환경 상호관계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해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재명, 1989, 전계서 pp.23-24)

36) 김광현역, 1985, 전계서, p.117

## IV. 사례연구

### 1. 사례연구대상지역의 개관

대곡지구는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으로 1993년 주택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여 1998년에 입주한 13,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서 새 대구시청으로부터 서남측으로 약 13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2. 사례연구의 방법

뉴커뮤니티에서의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고양시키기 위한 매개적 수단으로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우선 파악 해보려고 하는데, 선행적 연구로서 앞에서도 연구한 린치의 인지도 그리기 방법은 도시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이미지는 잘 파악되어 있으나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역사성 등은 포착되기 어렵다는 결함이 있다.<sup>37)</sup> 아울러 그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규목 교수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Lynch의 인지도 작성방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함으로서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고양시키기 위한 기본적 바탕으로 뉴커뮤니티에 새로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앞장에서 장소가 물리적 특성, 행위, 개념의 통합체로 파악되었듯이 문항의 범위는 물리적 속성, 행위적 속성 그리고 의미적 속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아울러 뉴커뮤니티의 거주자가 장소를 체험하는 단계가 시각적 측면이 강한 내부자에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감정이입적 내부자의 단계를 거쳐 실존적 내부성을 느끼는 상태로 보아 문항의 결과를 시각적 차원, 의식적 차원 그리고 가치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주관식 설문은 다음과 같다.

1) 귀하가 눈을 감고 대곡지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며 그 밖에 또 무엇이 보입니까? (시각적 차원)

2) 귀하가 대곡지구를 떠나서 이 곳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가장 잘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며 그 밖에

37) 이규목,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20, No.4, 1993년 1월, p.40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의식적 차원)

3) 대곡지구를 소개하는 책이 있다면 귀하가 그 책에 실어 알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밖에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치적 차원)

4) 대곡지구의 환경이나 경관 등을 해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밖에 환경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5) 귀하가 대곡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6) 5번 항목의 답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귀하가 대곡지구에서 가장 싫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8) 7번 항목의 답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9) 귀하가 대곡지구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족들과 친구 또는 혼자서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외 같은 목적으로 가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10) 귀하가 주말이나 휴일을 즐기기 위해 가족들과 친구 또는 혼자서 대곡지구에서 가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11) 귀하는 대곡지구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2) 귀하가 대곡지구에 이주하기 전 대곡지구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무엇이고 이주해 살면서 새로 알게 되거나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13) 귀하가 외부인에게 대곡지구를 안내한다고 가정할 때 귀하의 마음속에 있는 대곡지구의 지도를 그려 주십시오.

3. 사례조사분석

설문은 2002년 8월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 본인과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여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40매를 작성하여 인지도 작성을 하지 않은 것과 9개의 문항 중 3-4개만을 작성한 것 7매를 제외하고 총 24매를 수집하였다. 1차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내용에 보완을 하여 9월 6,7,8일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비교적

표 1. 설문대상자의 구성

연령	남	여	거주년수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20대 이하	4	6	3			1	6	10
30대	5	12	4	3	2	32	5	17
40대	6	14	2	4	3	2	9	20
50대	2	2			1	1	2	4
60대	1						1	1
	18	34	9	7	6	7	23	52

성실한 답변을 한 52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 모두는 대곡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년수는 대곡지구의 입주부터 살아온 4년에서부터 1년 미만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연령의 분포는 30-40대가 37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1) 시각적, 의식적, 가치적 항목 분석.

대곡지구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시각적 요소에 대한 응답의 대부분은 물리적 요소이며 그 중 특히, 아파트가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미적 요소에 대한 응답에서도 아파트가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각 및 의미적 측면에서 아파트가 가장 강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외부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가치적 측면에 대한 응답에서는 아파트라는 응답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형태의 아파트가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지각과 의식구조 속에 파악되어 질 뿐 외부에 비해 독특하고 우수한 측면에서의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한편,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의 56%가 자연적 환경(자연풍경, 맑은 공기, 월광공원, 등산로, 도시+자연)으로 나타난 것은 새로이 이주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구도심의 자연환경에 비해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료된다.

2) 선호적 · 비선호적 장소에 대한 응답

좋아하는 곳, 싫어하는 곳 그리고 그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좋아하는 측면은 더욱 강조를 하고 싫어하는 측면은 제거함으로써 새로이 형성된 뉴커뮤니



표 2. 시각적 · 의식적 · 가치적 차원의 응답

	물리적요소	인원 (%)	행위적 요소	인원 (%)	의미적요소	인원 (%)
시각적 차원	아파트	28(54)			양호한 주거환경 작은도시	2( 4) 1( 2)
	산	12(23)				
	월광호수	4( 7)				
	단지앞	2( 4)				
	복개도로	2( 4)				
	대곡지구 사거리성당	1( 2)				
계		49(94)		0( 0)		3( 6)
의식적 차원	아파트	24(46)	등산	1( 2)	조용한 주거환경 살기좋은 환경 동번호의 고유성	3( 6) 3( 6) 1( 2)
	산	12(23)				
	등산로	4( 7)				
	월광호수	3( 6)				
	맥도날드	1( 2)				
계		44(84)		1( 2)		7(14)
가치적 차원	자연풍경	15(29)	살기 좋다	17(32) 3( 6)	도시 + 자연	6(12)
	맑은공기	4( 7)				
	아파트	3( 6)				
	월광공원	3( 6)				
	등산로	1( 2)				
계		26(50)		20(38)		6(12)

티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뉴커뮤니티에 대한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호적, 비선호적 장소에 대한 응답 중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상당수 나타낸 것은 거주자들이 새로운 거주 지역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만큼 충분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뉴커뮤니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이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대곡지구의 역사성(전통)을 표현하고 있

표 4. 역사성 표현에 대한 응답

역사성을 나타내는 장소	인원수(%)
산	7( 13)
도원지	3( 6)
수박못	2( 4)
아파트	1( 2)
모르겠다(무응답 포함)	39( 75)
계	52(100)

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은 역사적 · 문화적 맥락의 지속성을 고려한 뉴커뮤니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과 아울러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의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이주전후의 이미지 분석

이주전 대곡지구에 대한 느낌은 '모르겠다' '아파트 단지', '논', '변두리' 등의 순으로 막연히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편리성의 측면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이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주후의 이미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다', '교통이 불편하다' '공기가 맑다', '작은 도시', '전원도시' 등의 새로이 형성된 뉴커뮤니티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르겠다'의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사항으로서 이는 주민들의 뉴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심과 관련되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인지도 분석

응답자가 그린 37개의 인지도에 나타난 요소를 린치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한 빈도 수에 따라

표 3. 선호적, 비선호적 장소에 대한 응답

좋아하는 곳	인원(%)	요인	인원(%)	싫어하는 곳	인원(%)	요인	인원(%)
월광공원	21	산책을즐긴다. 깨끗하다	20 1	아파트앞 상가 및 도로	12	무질서하다 사고가 자주난다	11 1
청룡산	13	등산을할수 있다	13	수박못 주변식당	4	무질서하다 쓰레기가 많다	2 2
산책로	4	여유롭게 산책을 할수 있다	4	6,7,9단지	2	할것이 없다 적막하다	1 1
시장	1	불것이많다	1	노점	2	무질서하다	2
대곡지구사거리	1	패스트푸드점이 많다	1	고압선2단지뒤	1 1	위험하다 도랑주변으로냄새가 난다	1 1
모르겠다	12			모르겠다 (없다 13포함)	30		

표 5. 이주 전·후의 이미지에 대한 응답

이주 전	인원(%)	이주 후	인원(%)
아파트단지	9( 17)	주거환경이 좋다	24( 46)
논	4( 8)	교통이 불편하다	7( 13)
변두리	3( 6)	공기가 맑다	4( 8)
깨끗하다	1( 2)	작은 도시이다	2( 4)
좋은 주거환경	1( 2)	전원도시이다	2( 4)
모르겠다.	34( 65)	주변풍경이 사라져 아쉽다	1( 2)
		동네가 크다	1( 2)
		모르겠다	11( 21)
계	52(100)		5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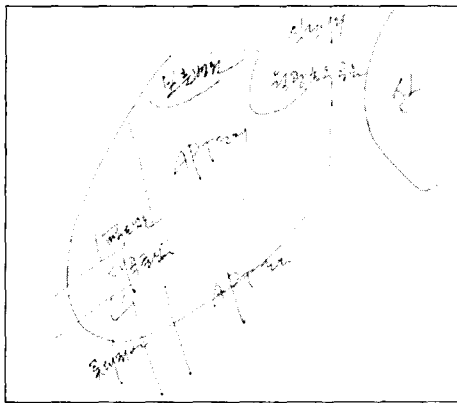


그림 1. 인지도 예(30대, 남, 2년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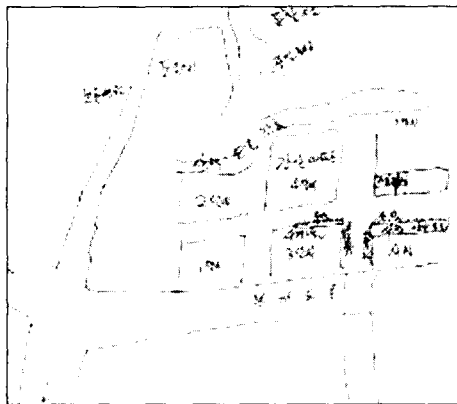


그림 2. 인지도 예(40대, 여, 4년 거주)

분류하여 보면 넓은 도로와 1단지에서 9단지에 이르는 아파트별로 구획된 지구(District)가 가장 강한 요소를 나타낸다. 표적물(Landmark) 로서는 월광공원

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월광 공원이 표적물로서 나타난 응답자의 대부분은 월광공원을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서 응답하고 있다. 아울러 청룡산, 도원지(못) 등도 표적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인지도에서 표적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자연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결절점(Node)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인지도에서 대곡사거리와 사거리 주변의 패스트푸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곳을 지구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V. 결 론

지금까지 뉴커뮤니티에서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파악하기 위한 매체로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뉴커뮤니티는 기존의 도시와는 그 형성 과정이 다른 바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기존의 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사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이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은 현재까지의 뉴커뮤니티 개발이 기존의 역사적·문화적 환경과 유리되어 이루어져 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뉴커뮤니티를 계획함에 있어 기존의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함과 아울러 새로이 전통을 쌓아갈 수 있는 계기적 요소가 필요하다 하겠다. 시각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의 질문에서 사례대상지역이 1~9단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파트라는 응답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 것은 각 단지별로 아파트가 특성 없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또한 가치적 차원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자연물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도 역시 아파트 단지 별로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연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커뮤니티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덴티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물론, 이는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경험이 아직까지 풍부한 의미를 지닌 감정 이입의 단계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물리적 요소, 행위적 요소, 의미적 요소)을 부여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애착심과 귀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 단지의 역사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뉴커뮤니티를 건설한다는 것은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과 경제적인 손익을 따지는 차원에서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는 기술이 아니라 어딘가 여유가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이어지고, 주민간의 연대의식이 숨쉬는 장소, 자신의 삶이 새로이 뿌리내리면서 풍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장소 즉, 새로운 주거 환경의 배경이 되는 기존의 지역, 그 위에 형성되는 건조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서로 융합되어, 풍부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광현(1978), 공간에서 장소로,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2호.
2. 김광현 역(1985),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3. 박아청(1988), 아이덴티티론, 교육문화사.
4. 이규목(1989),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24권 9호.
5. 이규목(1993),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 20, No. 4.
6. 이동배, 김용하(1991), 신도시 개발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3호.
7. 최병두(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원도시건축 세미나 8월 발제문.
8. 하재명(1988), 서민주거환경과 환경적 아이덴티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5호.
9. 하재명(1989), 물리적 환경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0. Canter, D.(1977), The psychology of Place, Architectural Press.
11. Colquhoun, A.(1985), 'Frames to Frameworks',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MIT Press.
12. Cooper, C.(1977), 'The House as a Symbol of Myself', J. Lang, C. Burnett, W. Moleski(eds.),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Dowden, Hutchinson & Ross.
13. Cullen, G(1961), Townscape, The Architectural Press.
14. Greene, S.(1992), 'Cityshape', APA Journal, vol. 52.
15. Hough, M.(1990), Out of Place, Yale Univ. Press.
16. Jacobs, J.(1966),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17. Noberg-Schultz, C.(1980), Genius-Loci, Rizzoli.
18.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imited.
19. Seamon, D.(1987), 'Phenomenology and Environment-Behavior Researches',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1.
20. Smithson, A. eds.(1968), Teamx Primer, MIT Press.